

• 찬양과 기도

- 찬양 : 새찬송가 446장 (주 음성 외에는)
- 기도 : 성령님께서 말씀으로 조명하여 주시길 기도합니다.

• 성경본문 (우리말성경)

• 길 표지판을 세우라

21 너 자신을 위해 길 표지판을 세우라. 너 자신을 위해 방향 뜻을 세우라. 대로, 곧 네가 갔던 길을 잘 생각하라. 처녀 이스라엘아, 돌아오라. 네 성읍들로 돌아오라. 22 타락한 딸아, 네가 얼마나 더 방황하겠느냐? 여호와가 땅 위에 새로운 것을 창조하셨으니 여자가 남자를 에워쌀 것이다."

• 남유다에 회복이 선포됨

23 이스라엘의 하나님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렇게 말씀하셨다. "내가 그들의 포로들을 돌아오게 할 때 유다 땅과 그 성읍들의 사람들이 다시 이런 말을 하게 될 것이다. '의의 처소여, 거룩한 산이여, 여호와께서 내게 복을 주신다.' 24 유다와 그의 모든 성읍들에 농부들과 양 떼를 몰고 다니는 사람들이 다 함께 살 것이다. 25 내가 고갈한 영혼을 만족시켰고 시들은 영혼을 새롭게 했기 때문이다." 26 이에 내가 깨어나 둘러보았다. 내 잠이 내게 달콤했다. 27 "여호와의 말이다. 내가 이스라엘의 집과 유다의 집을 사람의 씨와 짐승의 씨로 심을 날들이 오고 있다. 28 내가 그들을 지켜보아 뽑고, 붕괴시키고, 무너뜨리고, 파괴하고, 재앙을 가져왔듯이 그들을 지켜보아 세우고 심을 것이다. 여호와의 말이다. 29 그때에는 사람들이 더 이상 '아버지가 신 포도를 먹었으니 그 자식들의 이가 시다'라고 말하지 않을 것이다. 30 모든 사람이 각각 자기 죄로 인해 죽을 것이다. 신 포도를 먹는 자는 누구나 자기 이가 시릴 것이다.

• 마음열기

한 주간 일상에서 경험한 하나님의 은혜들을 간단하게 나눕니다.

• 말씀읽기

왼쪽 페이지의 성경 본문을 함께 읽습니다.

• 관찰하기

하나님께서 북이스라엘에 이어 남유다에도 회복을 선포하십니다. 백성은 하나님께서 열어주신 회복의 때에 그들의 처소로 돌아와 새롭게 하시는 은혜를 맛보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을 뽑고 붕괴시키고 무너뜨리고 파괴하고 재앙을 주셨듯이, 그들을 다시 세우고 심을 것이라고 약속하십니다.

1. 하나님께서 포로들을 돌아오게 하실 때 유다 땅과 그 성읍의 사람들이 다시 하게 될 말은 무엇인가요? (23절)
2. 하나님께서는 뽑고, 붕괴시키고, 무너뜨리고, 파괴하고, 재앙을 가져온 것들에 대해 이제 어떻게 하겠다고 말씀하시나요? (28절)

• 닦아가기

내 삶에서 뽑고 붕괴시키고 무너뜨리고 파괴할 것은 무엇인가요? 또, 다시 세우고 심을 것은 무엇인가요?

• 기도하기

- ① 기도제목을 나누고 함께 기도합니다.
 - 오늘 묵상한 말씀에 순종할 수 있도록
 - 함께 나눈 기도제목들을 위해
- ②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로 마칩니다.

1 찬양과 기도

- 찬양 : 새찬송가 546장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 서)
- 기도 : 성령님께서 말씀으로 조명하여 주시길 기도합니다.

2 성경본문 (우리말성경)

· 새 언약을 약속하심

31 여호와와의 말이다. 내가 이스라엘의 집과 유다의 집과 새 언약을 맺을 날들이 오고 있다. 32 이 언약은 그들의 조상들의 손을 붙잡고 이집트 땅에서 나오게 하던 날, 내가 그들의 조상과 맺은 언약과는 같지 않다. 내가 그들의 남편이었음에도 그들은 내 언약을 깨뜨렸다. 여호와와의 말이다. 33 여호와와의 말이다. 이것이 내가 그날들 후에 이스라엘의 집과 맺을 언약이다. 내가 내 율법을 그들의 생각 속에 주고 그들의 마음에 기록할 것이다. 그리하여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될 것이다. 34 그들은 각자 자기 이웃에게 또는 자기 형제에게 더 이상 '여호와를 알라' 하고 말하지 않을 것이다. 이는 가장 작은 사람들부터 가장 큰사람들까지 그들 모두가 나를 알 것이기 때문이다. 내가 그들의 죄를 용서하고 그들의 죄를 더 이상 기억하지 않을 것이다. 여호와와의 말이다." 35 여호와께서 이렇게 말씀하셨다. "해를 낮의 빛으로 주고 달과 별을 밤의 빛으로 명하시고 바다를 흔들어 파도가 소리치게 하는 이, 그의 이름은 만군의 여호와다. 36 여호와와의 말이다. 이러한 법칙들이 내 앞에서 어긋나지 않는 한 이스라엘 자손 또한 내 앞에서 한 민족으로 남아 있기를 영원히 멈추지 않을 것이다." 37 여호와께서 이렇게 말씀하셨다. "저 위의 하늘이 측량될 수 있고 저 아래 땅의 기초가 조사될 수 있다면 나도 이스라엘 자손들이 행한 모든 것으로 인해 이스라엘 자손들을 버릴 수 있을 것이다. 여호와와의 말이다.

· 예루살렘이 재건될 날

38 여호와와의 말이다. 보라. 이 성읍이 여호와를 위해 '하나님의 탑'으로부터 '모퉁이 문'까지 재건될 날이 오고 있다. 39 측량하는 줄자가 그곳에서부터 곧바로 가렘 언덕까지 갈 것이고 그다음 고아로 돌아갈 것이다. 40 시체들과 재의 골짜기 전체와 기드론 시내와 동쪽의 '말 문' 모퉁이에 이르는 모든 들판이 여호와께 거룩한 곳이 될 것이다. 그 성읍이 결코 다시는 뿔뿔히 무너지지 않을 것이다."

3 묵상하기

이스라엘을 이집트에서 이끌어내신 하나님께서는 시내 산에서 율법을 돌판에 새겨 모세에게 주셨습니다. 그러나 백성은 돌판에 새겨진 하나님의 명령들을 완벽하게 지킬 수 없는 존재들이었고, 번번이 세상 앞에서 무너졌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방 나라의 포로가 되는 고난을 통해 그들을 낮아지게 하신 후, 이번에는 돌판이 아닌 각 사람의 마음에 하나님의 법을 새겨 주시겠다고 약속하십니다. 그것이 바로 '새 언약'입니다. 이 새 언약은 지금 내 안에 완성되어 있습니다. 이 언약은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을 믿고 영접한 모든 사람에게 성령이 임하심으로 완성되었기 때문입니다. 이제 나는 다른 누구를 통하지 않고도 내 안에 계신 하나님과 직접 교제하며(34절) 그분이 부여하시는 생각과 마음으로 살아갑니다. 이것이 새 언약 안에서 사는 삶입니다.

4 적용하기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고 성령으로 충만해진 나는 이미 새 언약 안에 있는 자녀입니다. 이제 나는 두려운 마음으로 하나님 마음에 들기 위해 노력하는 삶이 아닌, 내 안에서 이끄시고 도우시고 지키시는 성령님과 하나 된 새로운 삶을 살아갑니다. 오늘도 내 안에 하나님의 생각과 마음을 불어넣어 주시는 성령의 인도하심에 순종하는 하루가 되기를 바랍니다.

5 생각하고 나누어보기 (각자의 삶을 서로 나눠 봅시다)

- ① 나를 낮추시고 단련하시는 하나님의 본심은 겸손해진 내 안에 직접 들어오셔서 함께 사시며 나를 거룩하게 세우시려는 것임을 믿나요?
- ② 나는 순간순간 내 안에서 말씀하시고 인도하시는 성령님께 얼마나 예민하게 반응하나요? 혹시 다른 곳에 집중하느라 듣지 못하는 것은 아닌가요?

6 기도하기

- ① 기도제목을 나누고 함께 기도합니다.
- ② 제 마음에 새겨두신 말씀을 따라 말하고 행동하며 새 언약의 삶을 살게 해주세요. 예수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 ③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로 마칩니다.

1 찬양과 기도

- 찬양 : 새찬송가 336장 (환난과 핍박 중에도)
- 기도 : 성령님께서 말씀으로 조명하여 주시길 기도합니다.

2 성경본문 (우리말성경)

· 감옥에 갇힌 예레미야

1 유다 왕 시드기야 10년 느부갓네살 18년에 여호와께로부터 예레미야에게 임한 말씀입니다. 2 그때에 바벨론 왕의 군대가 예루살렘을 포위하고 있었고 예언자 예레미야는 유다 왕의 집 경호대 뜰에 갇혀 있었다. 3 유다 왕 시드기야가 그를 감옥에 가두며 말했다. "너는 왜 '여호와께서 이렇게 말씀하셨다. 보라. 내가 이 성읍을 바벨론 왕의 손에 넘겨 줄 것이니 그가 이곳을 차지할 것이다. 4 유다 왕 시드기야는 갈대아 사람들의 손에서 빠져나가지 못할 것이고 반드시 바벨론 왕의 손에 넘겨져 그와 얼굴을 맞대고 이야기하고 눈을 맞대고 볼 것이다. 5 그가 시드기야를 바벨론으로 잡아갈 것이고 내가 그를 돌아볼 때까지 그곳에 있을 것이다. 너희가 갈대아 사람들과 싸우더라도 너희가 그들을 이기지 못할 것이다. 여호와와 말이'라고 예언을 하느냐?"

· 아나돗의 밭을 삼

6 예레미야가 말했다. "여호와와 말씀이 내게 임해 말씀하셨습니다. 7 보아라. 네 삼촌인 살룸의 아들 하나멜이 네게 와서 말한다. '아나돗에 있는 내 밭을 사라. 그것을 사서 되찾을 권리가 네게 있다.' 8 그러자 여호와와 말씀대로 내 삼촌의 아들인 하나멜이 경호대 뜰에 있는 내게 와서 말했습니다. '베냐민 땅 아나돗에 있는 내 밭을 사라. 그 상속권이 네게 있고 그것을 사서 되찾을 권리가 네게 있으니 네가 사라.' 이것이 여호와와 말씀인 것을 내가 알았습니다. 9 그래서 내가 내 삼촌의 아들인 하나멜에게서 아나돗에 있는 밭을 사고 그에게 은 17세겔을 달아 주었습니다. 10 내가 증서를 써서 봉인하고 증인을 세우고 저울로 은을 달아 주었습니다. 11 내가 매매 증서를 법과 규례에 따라 봉인한 것과 봉인하지 않은 것을 다 가져다가 12 내 삼촌의 아들인 하나멜과 매매 증서에 서명한 증인들과 경호대 뜰에 앉아 있던 모든 유다 사람들 앞에서 매매 증서를 마세야의 손자이며 네리아의 아들인 바룩에게 주었습니다. 13 그들 앞에서 내가 바룩에게 명령했습니다. 14 '이스라엘의 하나님 만군의 여호와와 이렇게 말한다. 이 증서들, 즉 봉인한 증서와 봉인하지 않은 증서를 가져다가 토기 안에 담아서 오랫동안 보관하여라. 15 이스라엘의 하나님 만군의 여호와와 이렇게 말한다. 사람들이 이 땅에서 집과 밭과 포도밭들을 다시 사게 될 것이다.'

3 묵상하기

본문의 배경이 되는 시드기야 10년(1절)은 유다의 최악이 극에 달해 있던 시기입니다. 시드기야 왕은 예루살렘이 함락될 것이라는 예레미야의 선포를 듣고는 자신에게 유리한 예언을 하지 않는다며 그를 가두었습니다(3-5절). 그런 어려움을 온몸으로 견디면서도 예레미야는 묵묵히 자신이 해야 할 일을 감당합니다. 사실 유다가 곧 멸망할 것이라고 예언하면서 동시에 비싼 돈을 들여 유다 땅을 사는 것은 앞뒤가 맞지 않아 보입니다. 그러나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이기에 예레미야는 그대로 순종합니다(6,8절). 이처럼 내 삶에도 다른 사람의 눈치 보지 않고, 처한 현실과 상관없이 순종해야 할 말씀이 있습니다. 이해되지 않고 막연해 보여도 하나님의 말씀이라면 "아멘!" 하며 따라가는 사람, 그 사람이 내가 되기를 바랍니다.

4 적용하기

내 삶에도 예레미야와 같은 순종이 있나요?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볼까', '그렇게 하면 손해를 볼 텐데', '하나님을 믿는데 왜 나에게 이런 일이 생기는 거야'라는 생각은 언제나 나를 움츠러들게 합니다. 그러나 눈앞의 현실이 어떠한 하나님의 마음과 시선으로 바라본다면, 주님은 절망적인 상황에서도 소망을 갖고 오늘도 순종의 한 걸음을 떼게 해 주실 것입니다.

5 생각하고 나누어보기 (각자의 삶을 서로 나눠 봅니다)

- ① 나를 말씀대로 살지 못하게 만드는 장애물은 무엇인가요? 자존심, 사람들의 평판, 인정받고 싶은 욕심 등이 장애물이 되고 있는 것은 아닌가요?
- ② 지금껏 결단이 필요할 때마다 즉시 순종하기보다 내 이익을 계산하는 데 더 빨랐다면, 이제 모든 계산을 멈추고 순종해야 할 말씀은 무엇인가요?

6 기도하기

- ① 기도제목을 나누고 함께 기도합니다.
- ② 주님 말씀 앞에서는 묻지도 따지지도 말고 일단 순종으로 나아가는 제가 되게 해주세요. 예수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 ③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로 마칩니다.

1 찬양과 기도

- 찬양 : 새찬송가 322장 (세상의 헛된 신을 버리고)
- 기도 : 성령님께서 말씀으로 조명하여 주시길 기도합니다.

2 성경본문 (우리말성경)

· **예레미야의 기도 16** 내가 매매 증서를 네리야의 아들 바룩에게 건네준 후에 내가 여호와께 기도했습니다. **17** '아, 주 여호와여, 보소서. 주께서 큰 능력과 펼친 팔로 하늘과 땅을 만드셨습니다. 주께는 너무 어려워서 못할 일은 없습니다. **18** 주께서 수천 명에게 인애를 베푸시고 조상들의 죄악을 그들의 자손들의 품에 갇으십니다. 크고 능하신 하나님이며, 주의 이름은 만군의 여호와이십니다. **19** 주의 뜻은 위대하시고 주의 일에 능력이 있으십니다. 주의 눈이 사람의 모든 길을 주목하시니 주께서는 모든 사람에게 각자 자기의 행동과 행위의 열매에 따라 갇아 주십니다. **20** 이집트 땅에서 그리고 오늘날까지 이스라엘과 모든 인류 가운데 주께서 표적과 기사를 행하시어 주의 이름을 오늘과 같이 되게 하셨습니다. **21** 주께서 주의 백성 이스라엘을 표적과 기사로, 강한 손과 펼친 팔로, 큰 두려움으로 이집트 땅에서 이끌어 내셨습니다. **22** 그들의 조상들에게 주시겠다고 주께서 맹세하신 이 땅, 곧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을 주께서 그들에게 주셨습니다. **23** 그리하여 그들이 와서 그 땅을 차지하게 됐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주의 목소리에 순종하지도 않고 주의 율법을 따르지도 않았습니다. 주께서 그들에게 행하라고 명령하셨던 모든 것 가운데 어떤 것도 그들이 행하지 않았습니다. 그리하여 주께서 이 모든 재앙을 그들에게 가져오셨습니다. **24** 보소서. 저 흙 언덕 쌓은 것을! 그들이 이 성읍을 차지하려고 왔습니다. 이 성읍은 칼과 기근과 전염병을 보았습니다. 갈대아 사람들의 손에 이 성읍이 넘어갈 것입니다. 주께서 말씀하신 일이 일어났습니다. 보소서. 주께서 그것을 보고 계십니다. **25** 여호와여, 그런데 이 성읍이 갈대아 사람들 손에 주어졌는데도 주께서는 내게 은을 주고 그 밭을 사고 증인을 세우라고 말씀하십니다."

· **평화와 안전을 얻을 이스라엘 26** 그때 여호와의 말씀이 예레미야에게 임했습니다. **27** "보아라. 나는 모든 육체의 하나님 여호와다. 내게 너무 어려워서 못할 일이 있느냐? **28** 그러므로 여호와가 이렇게 말한다. 내가 이 성읍을 갈대아 사람들과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의 손에 넘겨줄 것이다. 그가 이것을 취할 것이다. **29** 이 성읍을 공격하는 갈대아 사람들이 이 성읍에 와서 불을 지를 것이다. 그들은 지붕에서 바알에게 분향하고 다른 신들에게 전제물을 부어 나를 화나게 했던 사람들의 집과 함께 이 성읍을 태워 버릴 것이다. **30** 이스라엘 자손과 유다 자손이 그들의 어린 시절부터 내 눈앞에서 악한 짓만 했다. 이스라엘 자손들은 그들의 손으로 만든 것으로 나를 화나게 했다. 여호와의 말이다. **31** 건축한 그날부터 오늘까지 이 성읍이 내 노여움과 분노를 일으켰기 때문에 내가 이것을 내 눈앞에서 없애 버릴 것이다. **32** 이스라엘 자손과 유다 자손이 그들이 행한 모든 악으로 인해 나를 화나게 했다. 그들이나 그들의 왕들이나 그들의 관료들이나 그들의 제사장들과 그들의 예언자들이나 유다 사람들이나 예루살렘에 사는 사람들이 다 그러했다. **33** 그들이 내게 얼굴이 아니라 등을 돌렸다. 내가 그들을 거둬서 가르쳤으나 그들이 훈계를 들으려 하지도 않았고 받아들이지도 않았다. **34** 그들이 내 이름으로 불리는 집에 그들의 가증스러운 우상들을 세우고 그곳을 더럽혔다. **35** 그들은 힌놈의 아들 골짜기에 바알의 산당을 짓고는 자기 아들과 딸들을 불 속으로 지나가게 해 물레에게 바쳤다. 이러한 일은 내가 명령하지도 않았고 내 마음에 떠오르지도 않았던 일인데 그들이 이 가증스러운 일을 해서 유다로 하여금 죄짓게 했다."

3 묵상하기

예레미야도 하나님의 뜻이 완벽히 이해가 되어 순종한 것이 아닙니다.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대로 행한 것뿐입니다. 그 또한 조국의 멸망을 보는 것이 마음 아팠고, 유다에 대한 하나님의 의도를 다 알 수 없었습니다. 그럼에도 무조건 순종할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잘 알았기 때문입니다. 혼란스러운 마음으로 드리는 예레미야의 기도 속에 하나님이 모든 것을 다스리시는 주관자이자 심판자이심을 인정하는 그의 고백이 잘 담겨 있습니다(17-25절). 이에 대해 하나님께서는 예레미야의 눈높이에서 유다의 현실과 백성을 향한 큰 그림을 설명해 주십니다. 이유 없는 하나님의 말씀은 없습니다. 다만 그것을 우리의 작은 시야로는 다 이해할 수 없을 뿐입니다. 그러니 선순종, 후질문, 이것이 순서입니다.

4 적용하기

이해되지 않고 비현실적인 명령에도 다 뜻이 있음을 우리는 오늘 말씀을 통해 봅니다. 오늘도 마주하게 될 모든 상황들 앞에서 이것저것 따지기 전에 먼저 순종할 수 있기 바랍니다. 먼저 순종한 후에 질문해도 늦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가장 좋은 때에 그분의 방법으로 그분의 뜻을 보이실 것입니다.

5 생각하고 나누어보기 (각자의 삶을 서로 나눠 봅니다)

- ① 나는 하나님의 뜻을 다 알 수 없음에도 내 생각에는 이해되지 않는다면 순종을 미루고 있는 것은 아닌가요?
- ② 요즘 내가 혼란스럽고 아픈 마음으로 하나님께 묻고 싶은 것은 무엇인가요? 오늘 조용히 하나님께 질문하는 시간을 가져 보면 어떨까요?

6 기도하기

- ① 기도제목과 나누고 함께 기도합니다.
- ② 먼저 순종하고 후에 질문할 때 모든 것을 명백히 알려주실 주님을 기대합니다.
예수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 ③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로 마칩니다.

1 찬양과 기도

- 찬양 : 새찬송가 267장 (주의 확실한 약속의 말씀 듣고)
- 기도 : 성령님께서 말씀으로 조명하여 주시길 기도합니다.

2 성경본문 (우리말성경)

· 영원한 언약을 약속하심

36 "그러므로 이제 '그것이 칼과 기근과 전염병으로 바벨론 왕의 손에 주어질 것이다'라고 너희들이 말하는 이 성읍에 대해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말씀하셨다. 37 보라. 내 노여움과 분노와 큰 격분으로 내가 그들을 쫓아냈던 모든 땅에서 내가 그들을 모을 것이다. 내가 그들을 이곳으로 돌아오게 하고 그들을 안전하게 살게 할 것이다. 38 그들은 내 백성이 되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될 것이다. 39 그리고 내가 그들에게 한마음과 한길을 주어 그들이 자기와 자기 자손들의 복을 위해서 나를 항상 경외하게 할 것이다. 40 내가 영원한 언약을 그들과 맺어 그들에게서 돌이켜 떠나지 아니하고 그들에게 복을 줄 것이다. 내가 그들의 마음에 나를 경외함을 두어 그들이 나를 떠나지 않게 할 것이다. 41 내가 그들에게 복을 주는 것을 기뻐할 것이고 내가 내 온 마음과 내 온 정신으로 확실하게 그들을 이 땅에 심을 것이다.

· 회복을 약속하심

42 여호와가 이렇게 말한다. 내가 이 모든 큰 재앙을 이 백성에게 내린 것같이 내가 그들에게 약속한 모든 복도 그렇게 그들에게 내릴 것이다. 43 '황폐해 사람이나 동물이 없고 갈대아 사람들의 손에 주어졌다' 하며 너희들이 말하는 이 땅에서 밭이 매매될 것이다. 44 베냐민 땅과 예루살렘 주변 지역들과 유다 성읍들과 산간 지방의 성읍들과 서쪽 평원의 성읍들과 남쪽 성읍들에서 사람들이 은을 주고 밭들을 사고 매매 증서에 서명해 봉인하고 증인을 세울 것이다. 이는 내가 그들을 포로 생활에서 돌아오게 할 것이기 때문이다. 여호와와의 말이다."

3 묵상하기

어제 본문에 이어 오늘 본문도 예레미야의 기도에 대한 하나님의 응답입니다. 어제 본문이 타락한 유다가 받을 심판에 대한 말씀이었다면, 오늘 본문은 심판 후에 있을 회복에 대한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때가 되면 쫓아냈던 백성을 모아 다시 유다 땅에 심으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41절). 즉, 밭을 다 갈아엎고 정돈한 뒤 새로운 씨를 심듯이 백성 또한 새롭게 다시 심으시겠다는 것입니다. 부분적으로 고통이 핀 경우에는 그 부분만 제거하면 되지만, 전체에 다 퍼졌다면 대대적인 청소가 필요합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 죄에서 돌이킬 기회를 주셨음에도 돌이키지 않다가 죄에 완전히 물들어 버렸다면 그때는 삶의 전 영역에 걸친 대대적인 청소가 필요합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징계하시고 연단하시는 이유이고, 나를 포기하지 않고 사랑하신다는 증거입니다.

4 적용하기

'인간의 절망은 하나님의 기회'라는 말처럼 하나님의 심판과 회복은 정반대인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하나이며, 사랑의 다른 표현입니다. 매 맞지 않고는 스스로 돌이키지 못하는 우리를 위해 사랑의 매를 드시는 주님의 마음을 묵상하기 바랍니다. 나의 무기력함과 비참함을 보고 절망하게 되는 순간에 그 안에 담긴 사랑을 깨닫는다면, 그 때부터 회복될 수 있습니다.

5 생각하고 나누어보기 (각자의 삶을 서로 나눠 봅니다)

- ① 하나님께서는 기꺼이 내 삶 구석구석을 깨끗이 청소하려 하십니다. 그런데 나는 하나님도 포기하지 않은 나를 스스로 포기하려던 것은 아닌가요?
- ② 미래의 소망을 말씀하시는 하나님 앞에서 나는 현재의 아픔에만 몰두하며 낙심해 있던 것은 아닌가요? 이제 툭툭 털고 일어날 아픔의 자리는 어디인가요?

6 기도하기

- ① 기도제목을 나누고 함께 기도합니다.
- ② 끝까지 저를 포기하지 않으시고 거룩한 자녀로 세워 가시는 주님의 은혜를 찬양합니다. 예수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 ③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로 마칩니다.

1 찬양과 기도

- 찬양 : 새찬송가 363장 (내가 깊은 곳에서)
- 기도 : 성령님께서 말씀으로 조명하여 주시길 기도합니다.

2 성경본문 (우리말성경)

· 내게 부르짖어라

1 예레미야가 아직 경호대 뜰에 갇혀 있을 때 또다시 여호와의 말씀이 예레미야에게 임해 말씀하셨습니다. 2 "땅을 만든 여호와와, 땅을 형성하고 세운 여호와와, 그 이름이 여호와라 하는 이가 이렇게 말한다. 3 '내게 부르짖어라. 그러면 내가 네게 대답하겠고 네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스러운 일들을 네게 알려 줄 것이다.'

· 회복을 약속하심

4 흠 언덕과 칼에 대해 붕괴된 이 성읍에 있는 집들과 유다 왕의 집에 대해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와 이렇게 말한다. 5 '그들이 갈대아 사람들과 싸우기 위해서 왔지만 내가 진노와 분노로 죽인 사람들의 시체로 이 성읍을 채울 것이다. 이는 그들의 모든 죄악으로 인해 이 성읍에서 내가 내 얼굴을 숨길 것이기 때문이다. 6 그러나 보라. 내가 이 성읍에 건강과 치유를 가져올 것이다. 내가 그들을 치료해 그들에게 풍성한 번영과 안정을 드러내 보일 것이다. 7 내가 유다의 포로와 이스라엘의 포로를 돌아오게 하고 그들을 처음과 같이 세울 것이다. 8 그들이 내게 저지른 모든 죄악을 내가 그들에게서 씻어 내고 그들이 내게 저지른 모든 죄악과 나에 대한 반역을 내가 용서할 것이다. 9 그러면 내가 그들을 위해 해 준 모든 복들에 대해 땅 위의 모든 민족들이 듣고 이 성읍은 내게 기쁨과 찬양과 영광의 이름이 될 것이다. 내가 이 성읍에 제공한 모든 복과 모든 평안으로 인해 그들이 두려워하고 떨 것이다.' 10 여호와가 이렇게 말한다. '이곳은 사람도, 짐승도 없는 황무지다'라고 너희가 말하고 있는 이곳에, 황폐하게 돼 사람도 동물도 살지 않게 된 유다 성읍들과 예루살렘 거리에 다시 소리가 들릴 것이다. 11 그것은 기쁨의 소리와 즐거움의 소리고, 신랑의 소리와 신부의 소리고, '만군의 여호와께 감사를 드리라. 여호와와 선하시고 그분의 인자는 영원하기 때문이다'라고 말하며 여호와와 집에 감사의 제물을 드리는 사람의 소리다. 이는 내가 이 땅의 포로들을 처음과 같이 돌아오게 할 것이기 때문이다. 여호와가 말한다. 12 만군의 여호와가 이렇게 말한다. '황폐하게 돼 사람이나 짐승이 살지 않는 이 모든 성읍들에 양 떼를 높게 할 목자들의 목초지가 다시 생길 것이다. 13 산간 지대의 성읍들과 서쪽 평원의 성읍들과 남쪽 성읍들과 베냐민 땅과 예루살렘 주변 지역과 유다의 여러 성읍들에서 양 떼가 양의 숫자를 세는 사람의 손 아래로 다시 지나가게 될 것이다.' 여호와가 말한다.

3 묵상하기

유다의 멸망은 하나님께서 이미 정하신 뜻이므로 그 누구도 막을 수 없습니다(4-5절). 이것이 심판이며 회복을 위한 과정임을 깨닫지 못하는 사람들은 현실에 맞서 싸우려고 하겠지만(5절), 이때 정말 필요한 일은 '부르짖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부르짖는 백성에게 그분의 크고 비밀스러운 일들을 알려주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3절). 그 일들을 깨달을 때 넘어졌던 자리에서 일어나, 미래를 알 수 없어 막막한 일상이 아닌 소망을 품은 하루하루를 살아갈 수 있습니다. 인내하며 기다린 끝에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크고 비밀스러운 일들을 맛보게 됩니다. 눈에 보이듯 구체적으로 회복한 유다의 모습을 미리 알려주시는 오늘 말씀을 기억하기 바랍니다(8-13절). 하나님은 겸손히 묻고 구하는 모든 사람에게 비밀스럽게 감춰져 있는 주님의 뜻을 알려주십니다.

4 적용하기

하나님께서 나의 간절한 기도를 절대 외면하지 않으십니다. 응답은 물론, 내가 생각할 수도, 상상할 수도 없는 하나님의 비밀스런 계획까지도 알려주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 답이 보이지 않는 삶의 문제, 가족의 문제, 학교의 문제, 신앙의 문제가 있다면 주님께 내려놓고 겸손히 부르짖기 바랍니다. 답 없던 일상에 담긴 하나님의 계획과 비전을 보게 될 것입니다.

5 생각하고 나누어보기 (각자의 삶을 서로 나눠 봅니다)

- ① 내가 생각할 수도, 상상할 수도 없는 크고 비밀스러운 하나님의 일들을 아는 방법은 기도밖에 없습니다. 오늘, 나는 무엇을 놓고 부르짖을까요?
- ② 주님께 부르짖어야 할 문제임에도 기도하기보다 맞서서 해결하려고 안간힘을 쓰던 일이 있다면, 이제 어떻게 바로잡을까요?

6 기도하기

- ① 기도제목을 나누고 함께 기도합니다.
- ② 주님께 부르짖을 때마다 제게 응답해주세요. 주님의 비밀스러운 일들을 알려주세요. 예수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 ③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로 마칩니다.

1 찬양과 기도

- 찬양 : 새찬송가 86장 (내가 늘 의지하는 예수)
- 기도 : 성령님께서 말씀으로 조명하여 주시길 기도합니다.

2 성경본문 (우리말성경)

· 영원한 약속

14 여호와와 그의 말이다. '보라. 내가 이스라엘의 집과 유다의 집과 약속한 좋은 일을 행할 날이 오고 있다. 15 그날에, 그리고 그때에 내가 다윗에게서 한 의로운 가지가 나오게 할 것이니 그가 이 땅에서 정의와 의를 실행할 것이다. 16 그날에 유다가 구원을 얻고 예루살렘이 안전하게 살게 될 것이다. '여호와 우리의 의', 이것은 그의 이름이다. 17 여호와가 이렇게 말한다. '이스라엘의 집 보좌에 앉을 사람이 다윗에게서 결코 끊어지지 않을 것이다. 18 내 앞에서 번제를 드리고 곡식제물을 태우고 희생제물을 드릴 사람이 레위 사람 제사장들에게서 영원히 끊어지지 않을 것이다.'" 19 여호와와 그의 말씀이 예레미야에게 임했습니다. 20 "여호와와가 이렇게 말한다. '너희가 낮과 맺은 내 언약과 밤과 맺은 내 언약을 파기할 수 있어서 낮과 밤이 정해진 시간에 오지 못한다면 21 내가 내 종 다윗과 맺은 내 언약도 파기될 수 있을 것이고 그의 보좌에 앉아 다스릴 아들이 없을 것이다. 나를 섬기는 레위 사람 제사장들과 맺은 내 언약도 파기될 수 있을 것이다. 22 하늘의 별 무리들을 셀 수 없고 바다의 모래알을 측량할 수 없는 것처럼 내가 내 종 다윗의 자손과 나를 섬기는 레위 사람들을 번성하게 할 것이다.'"

· 버린 것이 아니다

23 여호와와 그의 말씀이 예레미야에게 임해 말씀하셨습니다. 24 "'자신이 선택한 두 족속을 여호와께서 버리셨다'고 이 백성이 말한 것을 네가 듣지 못했느냐? 그들이 이렇게 내 백성을 경멸해 그들을 한 민족으로 더 이상 여기지 않는다. 25 여호와와가 이렇게 말한다. ' 낮과 밤에 대한 내 언약이 흔들릴 수 없고 하늘과 땅에 대한 내 규례가 무너질 수 없는 것처럼 26 내가 야곱과 내 종 다윗의 자손을 버리지 않을 것이며 그 자손 가운데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자손을 다스릴 사람을 선택할 것이다. 내가 그들의 포로들을 돌아오게 하고 그들을 긍휼히 여길 것이다.'"

· 말씀읽기

말씀의 내용이 무엇인지, 이 말씀을 통해 나에게 말씀하시는 것은 무엇인지 생각하며 읽습니다. (와 닿는 말씀을 아래에 적어보세요.)

최소 3번 읽기를 추천합니다.

· 묵상하기

말씀을 통해 '자백해야 할 죄, 붙잡을 약속, 순종해야 할 명령' 등이 무엇인지 깊이 묵상하며, 아래에 적어보세요.

말씀에 비추어 나의 내면과 삶, 현재 상태 등을 구체적으로 돌아보세요.

· 적용하기

오늘 꼭 실천할 나만의 슬로건을 만들어 보세요. (행동으로 옮길 수 있는 구체적인 것으로 만들어봅니다.)

· 기도하기

서로 기도제목을 나누고 함께 기도한 뒤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로 마칩니다.